

현장 감각과 실무 능력을 기르다: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1982

디자인진흥원사

- 올림픽 상품디자인 개발위원회 설치
- 《세계 올림픽 상품 종합전》 개최
- 제품디자인 분야 디자인 전문교육 시작
- 제1기 산업디자인 교육 실시
- 《해외 우수 문구류전》 개최
- 《우수디자인 상품전》 개최

한국 디자인사

- 현대자동차 포니2 생산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디자인전문위원회 설치
(위원장 조영제)
- 한미수교 100주년 심벌마크 발표
- 민질홍상업디자인연구소,
서울 지하철 3, 4호선 전동차
전면 디자인

한국 사회사

- 약간통행금지제도 폐지
- 중·고교생 두발 자유화
- KOO 프로야구 출범
- 한강종합개발사업 착공

KIDP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 디자인·포장 산업 발전을 위해 1971년 디자인 세미나를 기점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사업을 전략적으로 실행했다. 전국 대학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감각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이 별도의 재교육 과정 없이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들을 배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72년부터 1999년까지 42회에 걸쳐 767명을 교육했다. 학생들에게는 현장 경험을, 기업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982년은 이러한 KIDP의 교육 사업이 **제품디자인으로** 본격 확대된 해이다. 이어서 1985년에는 **시각 디자인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 컴퓨터를 사용한 디자인 작업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수요를 재빨리 파악하고 1987년부터 최신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컴퓨터 디자인 교육**을 본격화했다. 방학 시즌에 맞춰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용과 각종 실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1990년대로 들어서며 수요가 급증하자 학기 중 평일까지 교육을 확대했다. 교육 과정도 디자인 수요에 맞춰 CAD, MAC, 3D 모델링 교육을 비롯하여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콘텐

츠 개발, 웹, 전자편집, 캐릭터 디자인 등 점차 세분화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최고 경영자 또는 공무원을 위한 디자인 마인드 과정 등 디자인 비전문가를 위한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KIDP는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산업디자인 정규 과정 외에 지자체 공무원 디자인 교육, 초·중·고생 디자인 캠프, 디자인 관리자 교육, 미술 교사 연수 등 다양한 계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1999년까지 제품 및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약 5,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1997년부터는 제품, 시각, 인테리어 등 토텔 디자인 교육을 위한 정규 과정을 신설해 6개월과 1년 과정으로 각각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997년 9월 30일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노동부 교육 훈련 기관, 1999년 9월 16일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교육 훈련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KIDP 설립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포장관리사 교육’은 개편해 국내 유일의 포장 공학 전문 기술 교육으로 발전시켰다. 이 교육은 1998년 말부터 포장관리사 통신 교육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KIDP는 고용노동부 주도의 ‘디자인·문화콘텐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y Skills Council, ISC)’를 운영하며 인재 수요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전략 분야 조사 등을 실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NCS)를 개발해 교육 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의거해 2012년 ‘디자인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사무국에 지정되었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전자원개발협의체(SC)의 ‘디자인산업 인력수급 실태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를 진행해 디자인계의 인력과 교육 현황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수요 파악이 가능해졌다. 전문 조사를 통해 수렴한 디자인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정책 수립과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